

4·3에 보내는 헌화의 노래
술가, '동백의 봄' 앨범 발매

싱어송라이터 술가가 이달 31일 제주4·3을 기리는 싱글앨범 '동백의 봄'을 발매한다.

'동백의 봄'은 4·3이 가진 아픔의 시간에 위로를 담아 보내는 헌화의 노래다.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오랜 상처의 시간을 견뎌 온 사람들에게 살며시 손 내밀어주는 위로의 노래로, 싱어송라이터이자 기타리스트인 이호석이 편곡과 공동 프로듀서를 맡아 술가의 깊이 있는 중저음 보이스를 절제되고 담백한 방식으로 담아냈다.

담담한 음악 화법을 빌어 곁에 있듯 말을 걸고 듣는 이가 각각의 방식으로 느끼고 해석하도록 이야기의 화자인 '술가'의 감정을 최소화했으며 술가의 음색 그대로 느낌을 표현하기 위해 비올라와 피아노 중심의 간결한 선율로 구성됐다.

이 앨범은 '술가, 노래의 24계절' 프로젝트의 첫 번째 싱글 앨범이기도 하다. '도시에 살면서 계절을 감각하며 세상에 무해한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으로 시작한 음악 프로젝트의 일환이며 봄, 여름, 가을, 겨울 총 4개의 앨범 중 '봄' 편이다.

“제주의 옛 모습” 찾습니다
제주학 아카이브 사진 공개 모집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가 '제4회 제주학 아카이브 사진 공개 모집'을 진행한다.

이번 공개 모집은 1980년대 이전에 촬영한 제의, 혼례, 민속놀이, 생활상 등 '제주의 옛 모습' 사진을 소장한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출품 수는 1인당 20점 이내(원본 사진)다.

신청기간은 오는 9월 30일까지다. 제주학연구센터를 방문해 직접 사진을 제출하거나 우편 발송 등의 방법으로 응모할 수 있다.

접수된 사진은 심사를 거쳐 우수 작품 7점을 선정해 상장과 부상을 수여한다. 일정한 심사 기준을 통과한 사진 출품자에게는 소정의 저작권료도 지급한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학연구센터 누리집을 참조하면 된다. 오은지기자

제주4·3, 다시 예술로 기억하다

4·3 추념 문화예술행사 잇따라
4월 1일부터 작가회의 시화전
4·3미술제 '경계의 호위' 전도

다시 4월이다. 올해도 곳곳에서 4·3을 추념하는 문화예술 행사가 잇따르고 있다.

제주민예총이 4·3예술축전의 일환으로 '2023 제주민예총 4·3예술 운동 30년 기록전'을 지난 21일부터 제주4·3평화기념관 기획전시실에서 선보이고 있고, 제주문화재단 기획전시실에선 재일조선인 작가 김석범과 김시중의 문학세계를 조명하는 4·3문학특별전 '김석범·김시중-불온한 혁명, 미완의 꿈'이 진행 중이다. 30회째를 맞은 4·3미술제는 올해는 조금 일찍 제주현대미술관에서 전시('기억의 파수' 전)를 열고 관람객을 맞고 있다.

전시는 4월의 문을 열며 계속된다.

올해 20회째를 맞은 제주작가회의의 4·3추념 시화전이 4월 1일 개막해 8월 31일까지 5개월간 제주4·3평화공원 문주(정문)에서 펼쳐진다.

올해는 '서러울수록 그리울수록 붉어지는'이라는 슬로건을 내걸었다.

제주작가회의는 "한국전쟁으



임옥상 작 '4·3레퀴엠'

로 인한 휴전 70년을 맞는 해인 만큼 평화와 인권의 의미를 인식하는 한편 육지형무소 이송 후 회생당하거나 예비검속으로 인한 4·3희생자들의 넋을 달래고 유족이나 체험자들의 삶, 4·3의 고통스러운 역사를 기억하고 기록하는 작품들이 전시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제주작가회의 회원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시인들도 함께 참여해 풍성하게 꾸려진다.

제주작가회의 강덕환 회장은 "말도 끝도 없이 들이대는 진실애국의 망언과 현수막 게침이 역사의 심장을 후벼파는 한 문학적 진실을 추구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탐라미술인협회가 주최하는 제30회 4·3미술제의 또 하나의 전시 '경계의 호위'도 1일부터 시작한다.

4월 30일까지 한 달간 진행되는 '경계의 호위'전은 두 개의 파트로 나뉘었다. 예술공간 이아와 포지션 민예선 국내의 51명의 작가의 출품작을 통해 4·3정신의 계승과 확장의 현장을 마주할 수 있다. 해외에선 하와이의 플로이강, 대만의 린이치, 일본의 오카베 마사오 등이 참여한다.

산지전갤러리는 예술을 통한 지속적 연대의 장으로 꾸려진다. 경기, 전주, 부산, 광주, 대구 지역에서 26명의 작가가 참여하는데, 4·3미술이 저항의 역사를 간직한 타 지역 미술계에서 어떻게 재해석되고 확장되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을 전망이다. 행사기간 중엔 올해 30회를 맞아 기획된 학술프로그램 '4·3미술 국제컨퍼런스'(4월 1~3일)도 열린다.

오은지기자 eioh@ihalla.com

고재만의

제주의 기억공간 <346>

구성: (사)제주어보존회
<재만그림글자 응용>



준네 골았저, "하르바님, '신식왕이자랑' 놀레 잘 혀엿수다양."
오맹이 골멘, "왕이자랑 도시 불려줍서. 안적도 줌이 았수다."
하르바지 골멘, "오, 경헝겨."

(2)왕이자랑 왕이자랑 나 아꼬온 예기 오닐 즈냐 꿈 소꿨이 천사 느를 거념헤
왕이자랑 왕이자랑 밤새낭 궤양 궤양 어멍골서 든꿈을 꾸멍 왕이자랑."
<원제:브람스작사가.독일.1868>

준네 골았저, "하르바님, '신식왕이자랑' 도 잘 들었수다. 후제 도시 혀어줍서."
오맹이 골멘, "누님, 누님이 '왕이자랑' 놀레헝국 난 송에기신디 먹을 커 주국
혀어가멍 무심을 확 텅 건강헝게 살게마슴. 봄이 웃 올겨덜안 기
분이 막 좋수다."

제주어 풀이

- *놀레 잘 혀엿수다양 : 노래 잘 하네요. *경헝겨 : 그렇게 할게.
- *오닐 즈냐 : 오늘 저녁. *꿈 소꿨이 : 꿈 속에.
- *천사 느를 거념헤 : 천사 너를 보호해.
- *꿈다(꿈다) : <그림>가슴에 품다. 마음에 간직하다.
- *밤새낭 궤양 궤양 : 밤새 고이 고이. *어멍골서 : 어머니 품에서
- *든꿈을 꾸멍 왕이자랑 : 단꿈을 꾸면서 잘 자라. *들었수다 : 들었어요.
- *후제 도시 혀어줍서 : 나중에 다시 해주세요. *놀레헝국 : 노래하고.
- *난 송에기신디 : 나는 송아지에게. *먹을 커 주국혀어가멍 : 먹이를 주며
- *무심을 확 텅 : 마음을 비워서. *웃 올겨덜안 : 곧 울거 같아서.
- *좋수다 : 좋아요.

고재만 화백

가족과 함께 국립제주박물관 봄 소풍

국립제주박물관은 봄을 맞아 가족 대상 주말 교육 프로그램 '우리 가족 박물관 나들이'를 운영한다. 마스크 해제로 입장을 회복한 올봄, 야외 여가 활동을 찾는 가족을 위해 마련한 프로그램이다.

4-5월에는 '제주 동자석'을 주제로 동자석의 의미와 역사를 알아보고, 동자석을 모티브로 한 액자 만들기 체험이 진행된다. 동자석

액자에는 가족의 소중한 순간을 담은 족자 사진을 넣어갈 수 있다.

프로그램은 4월 1일부터 매주 토요일 오후 2시와 오후 3시30분 국립제주박물관 야외전시장(우천 시 교육실)에서 운영되며, 6-10세 어린이를 포함한 가족을 대상으로 한다. 참가 접수 및 자세한 사항은 국립제주박물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은지기자

제주해녀문화 전승... 대백과사전 편찬 추진

문화재청, 올해 첫 지원사업
웃놀이 축제 등 총 16건 선정

제주해녀문화의 확산을 위한 기록화 사업이 추진된다.

문화재청은 '제주해녀문화 대백과사전 편찬' 등 총 16개 사업을 2023년 국가무형문화재 전승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선정했다.

이 사업은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 공동체종목의 전승공동체를 육성해 무형유산의 보전·전승을

강화하고자 문화재청이 올해 처음 지원하는 사업이다. 해녀를 비롯한 아리랑, 제다, 씨름, 김치 담그기, 제염, 온돌문화, 장 담그기, 전통어로방식-어살, 활쏘기, 인삼 제배와 약용문화, 막걸리 빚기, 떡 만들기, 갯벌어로, 한복생활, 웃놀이 등 현재 지정된 16개 국가무형문화재 공동체 종목이 사업 대상이다. 예산은 사업당 연간 최대 2억원(국비 1억, 지방비 1억)이 지원된다.

지난해 12월부터 진행된 이번 사

업 공모에는 총 9개 시·도의 20개 사업계획서가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전문가들의 검증을 거쳐 16건이 최종 선정됐다. 선정 사업 중엔 ▷전통 웃놀이 보급 및 축제(충남 공주시) ▷보성 오봉산 구들장 체석지 온돌 한마당(전남 보성군) ▷강진 월출산 차 문화 전승공동체의 활성화와 제다 무형유산의 가치 확산(전남 강진군) ▷함께 불러요 우리 아리랑(전남 진도군) 등이 있다.

해녀 공동체종목 관련에선 경남 거제시(200년 거제 해녀의 흔적을 찾아서)와 경북 포항시(포항 해녀 문화 학술조사) 등도 선정됐다.

오은지기자

취 임

서귀포시축협 조합장

제11대 서귀포시축산업협동조합장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김 용 관

남원읍 이사, 감사, 대의원, 축산계, 부녀회

취 축 임

표선농협조합장 **표선면 주민자치위원장** **(사)성읍민속마을보존회 이사장**

김 용 우 **안 창 언** **강 희 팔**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2017년도 표선면 이장협의회 일동